이념·명분·정체성 다 버리고…세력키우기 무분별 이합집산

야권 재편 과정서 드러난 정치권의 민낯

진보·보수 넘나든 인사 영입
정치적 인연·신의도 버려
배신 판친 탈당·잔류·영입…
총선 앞두고 이전투구 격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합집산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의와 금도를 지키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권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영입전이 펼쳐지는가 하면 약속과 신의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전투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해 당권을 맡긴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지역 민심을 편치않게 만들고 있다.

김 위원장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한데다, 10대 국회를 강제 해산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전문위원으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의 영입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징성을 확보하고 중도 진영 공략을 위한 더민주의 이종교배적 승부수로 보이지만 국보위 참여에 '후회한 적 없다'고 버티다가 뒤늦게 사과한 점은 야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 DJ(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씨의 더민주 입당과 이희호 여사와의 면담내용을 녹취한 국민의당의 행태는 DJ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야권의 맏형인 더민주에서 DJ의 상징성 등을 고려, 홍걸씨의 입당을 말리기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 오히려 DJ 적자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더민주를 탈당한 정대철 전 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권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전 고문은 '패륜정치'라며 강력 반발했으며 정 의원은 비서실장직을 고사했다.

오랫동안 이어온 정치적 인연과 신의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사람으로 평가받던 송호창 의원과 금태섭 변호사는 더민주에 잔류했고 김한길 의원 측으로 분류됐던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더민주에 합류했다.

더민주를 탈당한 박지원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던 이윤석·김영록 의원은 더민주에 잔류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박 의원의 측면 지원으로 그동안 고위 당직에 선임되는 등 정치적 입지 구축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영록·박혜자·이개호 의원도 더민주 탈당과 잔류를 놓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먼저 탈당에 나선 동료 의원들로부터 '약속을 지키기 않는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한 천정배 의원의 행보도 논란이다.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지사 등 호남신당 세력과 통합을 함께 논의하던 과정에서 한 마디 말도 없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결행했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지사는 '신의가 깨진 정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2년만의 야권 재편에 무분별한 이합집산과 이전투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때 일수록 말 없는 헌신과 진정성을 가진 정치 세력과 정치인이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취임 첫 일정 박정희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28일 오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무소속 연대 호남 독자 세력화' 가닥

측근 "입당 없이 독자 행보"…호남지역 총선구도 변수 주목

정동영 전 의원이 4·13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연대 등을 통해 호남에서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호남지역 총선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현재 호남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견돼 전북지역 표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전 의원의 무소속 연대 추진은 유권자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29 관악을 보궐선거 패배 후 전북 순창에서 지내온 정 전 의원은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혔으며, 곧 '칩거'를 끝내고 다음주 중으로 무소속 출마 선언과 함께 정치활동 재개에 나설 예정이다.

정 전 의원 측 핵심인사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독자성을 갖고 준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문을 닫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면서 "현재로선 독자적 행보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무소속연대를 포함한 독자세력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 이후 초라한 야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안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독자 행보를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독자신당 창당 방식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조만간 '하산'해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다음주 중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거 정풍운동을 함께 주도하던 천 의원의 창당 움직임과 맞물려 호남 기반의 '천-정 연대' 구축 가능성도 거론돼 왔지만, 천 의원이 안 의원과 먼저 손을 잡으면서 그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또 전주 덕진의 경우 더민주에는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 국민의당에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정 전 의원이 끼어들기 곤란한 현실적 딜레마도 있다. 여기에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탈당 후 '선명한 진보'를 표방한 '국민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일부에선 이념적 거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이 전주 덕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선거구도는 '더민주-국민의당-무소속' 등 3자 구도로 재편된다. 다만, 정 전 의원이 일단 독자적 행보를 유지하되 일정한 시점에 어느 한 세력과 전략적 연대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원년멤버 장하성·김병준 국민의당 합류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더민주 탈당

안철수 의원의 원년 멤버였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장이 국민의당(가칭) 외곽지원 그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실제로 김병준 원장은 29일 국민의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정치 간담회에 참석, 국민의당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 교수도 국민의당이 다음달 1일 개최하는 경제 관련 좌담회에 참석한다.

국민의당은 28일 이건태 변호사, 정재흠 회계사 등을 영입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성북갑 및 광주 출마 거론되고 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정 회계사는 장학재단 꿈퍼나눔마을 촌장, 재단법인 만포장학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경기 안성에서 출마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탈당과 함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곡성이 고향인 김 수석부대변인은 그동안 호남지역 언론은 물론 동교동계 등과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그는 4.13 총선에서 광주 또는 전남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의원 38건 19대 국회 평균 법안 발의 전남의원 6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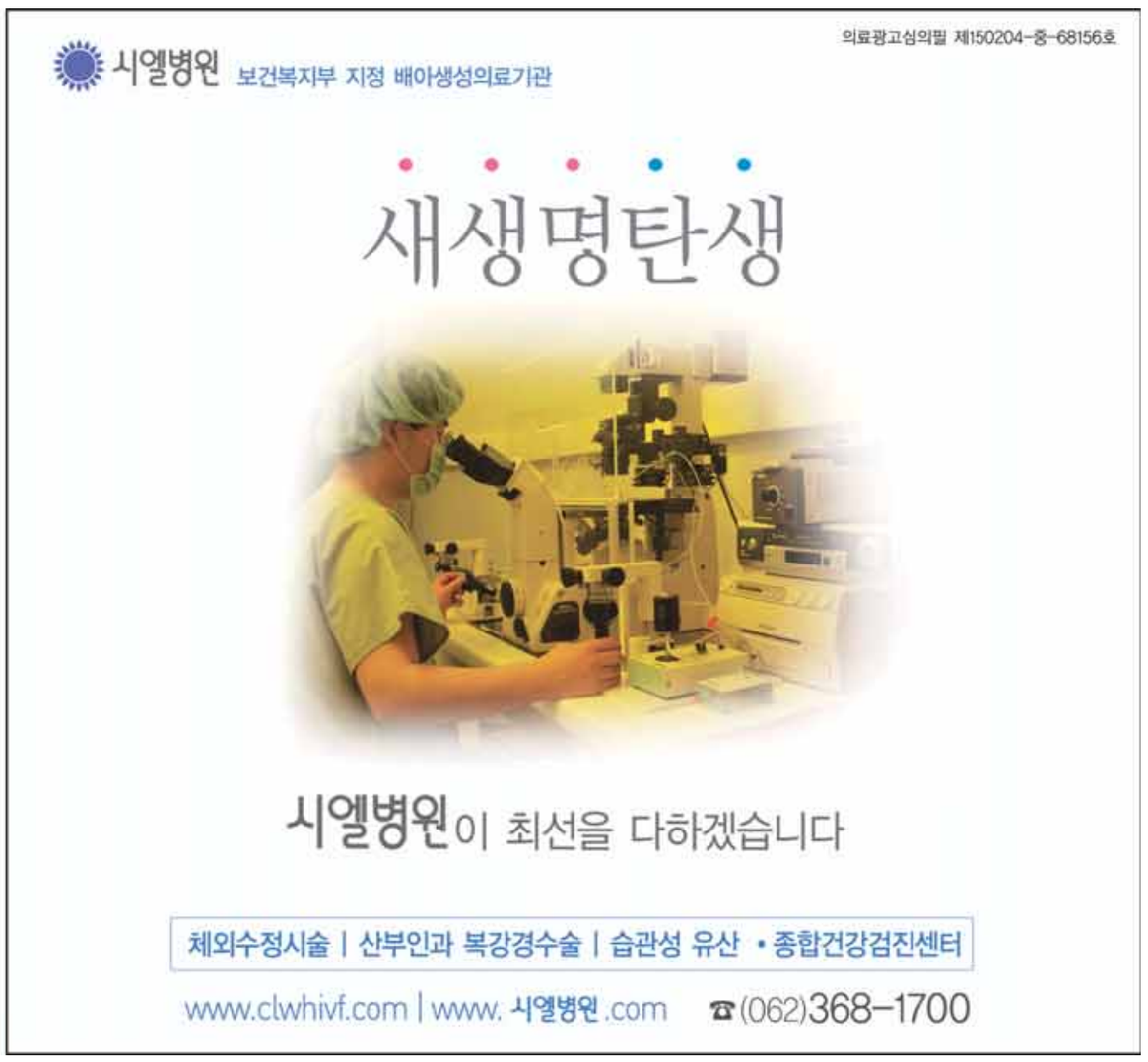
19대 광주 국회의원은 평균 38건, 전남 의원은 68건의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지역 현역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광주 의원들은 모두 380건, 전남은 953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광주·전남 의석수는 각각 8석·11석이지만 재·보궐 선거 등 사유로 물러난 의원까지 포함하면 10명·14명이었다. 이를 적용해 평균하면 광주는 1인당 38건, 전남은 68건을 발의했다.

광주지역 의원별로는 김동철 의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기정 의원 73건 ▲장병완 의원 62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주홍 의원이 1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현 의원은 8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8대 국회의 1인당 입법발의 건수가 1인당 평균 32.5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가결돼 공포된 법안 수가 적고 일부 법안에서는 발의 건수에만 신경 쓴 흔적도 있다고 밝은세상은 주장했다.

발의된 법률안이 실제 공포된 경우는 광주 15건(발의 대비 3.9%), 전남 81건(10.4%)에 그쳤다.

밝은세상 관계자는 "분석 결과 정책을 발굴하거나 지역 대표성을 살린 입법안이 부족해 보였다"며 "건수로만 의정 활동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입법활동이 저조하거나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면 의원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